

세계사에서의 무기 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VI - (2)

- 로마의 쇠퇴와 기마부대의 부상 200~400년 -



許重權

육군 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레지온 병사와 예비부대의 병사,
야전부대의 병사와 변경 부대 병사 등은
이제 대부분 원주민이었던
야만인들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375년에는 대부분의 야만인
전사들이 무기나 전술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로마화되도록 하였다.
로마군에 복무한 대부분의 야만인들은
스스로를 로마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소속된 부대와 지휘관에게 직업군인으로서의
완벽한 충성을 다하였다.

유럽 - 지중해 지역

■ 로마의 군사제도, 300년

*디오클레티안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혁

3세기 중반의 혼란 기간에 후임 황제들에 의하여 개선되고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1세기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채택한 행정, 정치 및 군사적 정책들은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중앙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邊境 방어체제는 강력한 군사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가져다 준 위협과 함께, 진보되고 있던 로마화된 야만인들이 가한 점증하는 위험한 침략에 로마 제국이 맞서야 했던 상황에는 잘 적응할 수 없었다. 組織과 作戰 개념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 규모의 단순한 증가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재조직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오던 체계와 개념

들에 적응해야 했던 초기의 Illyrian 출신 황제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倍加되는 적들로부터의 위협을 격퇴하는 데에 유일하게 의지한 것은 군대의 규모 증가였다.

그리하여 로마 군대의 총 병력은 500,000명까지 이르렀다. Aurelian, Probus, Carus 황제 등은 혹독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최소한 제국의 초기 시대에 유지하였던 것에 근접하는 訓練과 軍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임시 변통의 부대를 사용하여 그들은 게르만족과 페르시아인들을 물리쳤다.

로마군 解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변경 한 지역에서 부대를 뽑아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곳의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동시키는 오랜 관행에 있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한 지역에서 완전한 형태의 레지온 부대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레지온의 주요 부대를 유지하는 것도 드물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변경 방어에서 위험한 間隔을 남기게 되었다.

그 결과 논리적인 해결책은 각각 상이한 大隊, 레지온 및 numeri 부대들로부터 파견대를 뽑아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의 군대에 전술적인 부대로써 배속시켜 운용한 벡시레이션이라고 불린 特殊任務部隊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운용하기 좋았던 벡시레이션의 규모는 1,000명의 步兵과 500명의 騎兵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벡시레이션 체제가 초기에는 만족스러웠다.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특수임무부대는 해체되어 파견대들은 각자의 원소속 조직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235~290년의 소란스러웠던 기간 동안에 파견대들과 벡시레이션 부대들은 한 변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너무나 자주 신속하게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 부대들은 절망적으로 혼합되어 버렸다. 그 결과 레지온의 傳統과 團體精神은 거의 사라졌다.

이 점이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군사 정책과 군사

조직을 개혁한 이유였고 그의 개혁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이어져 마무리되었다.

機動 豫備部隊을 보유하기 위하여, 로마군의 군대는 2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그 중 하나는 limitanei 또는 riparienses라고 불린 邊境 部隊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기동력이 있는 부대들로 구성된 野戰機動部隊로서 palatini 또는 comitatenses라고 불렸다.

로마군 전체 병력의 거의 3분의 2는 변경 부대에 소속되었다. 나머지는 야전기동부대에 소속되었는데, 이 부대들은 여러 명의 황제들이 각각 통치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였다. 야전기동부대의 소속 병사는 변경 부대들에 소속된 병사들보다 약간 많은 給料를 받았는데, 후에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벡시레이션 체제의 운용 경험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야전에서 운용되는 레지온 부대의 규모를 1,000명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파견대의 배속 없이 보다 많은 전략적 및 전술적인 융통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변경 부대의 레지온은 6,000명으로 구성되었다. 예비부대들은 통상 기동부대 및 변경 부대에 공통적으로 1,000명으로 구성되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황제의 參謀長의 임무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직책이었던 近衛隊 대장의 직책을 없애버림으로써, 근위대를 직접 지휘하였다. 근위대장의 권력은 종종 황제를 축출하거나 황제직을 차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각각의 아우구스투스스와 가이사는 그 대신 보병사령관 및 기병대 사령관이라는 2명의 군사적 책임자를 두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하여 군사적인 힘을 나누고 정치적인 위험을 줄였을 뿐 아니라, 로마군 내에서 기병부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근위대를 해체하였는데 그 자리에 각각의 황제는 4,000명으로 구성된

個人 警護部隊을 두었다.

*새로운 戰鬪 隊形

디오클레티안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군대 규모의 분명한 변화 외에는 레지온의 전술적인 편제나 병사들에 있어서의 표면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로마 제국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그 변화들에는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실제적이고도 심리적으로 불행한 영향을 준 요소들이 있었다.

기동 야전부대의 歩兵은 일반적으로 변경 부대들에 소속된 歩兵에 비하여 그 裝備가 輕量化되어

갔다. 그들이 급료를 더 많이 받았던 점과 함께 무장을 경량화했던 점은 변경 부대 병사들의 질투심을 유발하였다.

레지온에 소속된 병사들과 예비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간의 배경이나 신체 조건이 더 이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변경의 레지온 부대에 복무하는 것이 무장면에서 덜 무겁고 훈련면에서 덜 엄격했던 예비 부대에서의 복무 또는 급료를 더 많이 받았던 야전 부대에서의 복무에 비하여 인기를 잃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장비와 훈련 계획에서도 레지온 병사와 예비 부대 병사들간의 구분을 감소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레지온 병사와 예비부대의 병사, 야전부대의 병사와 변경 부대 병사 등은 이제 대부분 원주민이었던 야만인들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375년에는 대부분의 야만인 전사들이 무기나 전술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로마화되도록 하였다.

로마군에 복무한 대부분의 야만인들은 스스로를 로마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소속된 부대와 지휘관에게 직업군인으로서의 완벽한 충성을 다하였다.

로마보병은 통상 두줄로 대형을 갖추어 전투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인 군인들이 야만인이 아니었던 경우보다 더 자주 야만인 출신이었던 자신들의 로마군 지휘관에 의하여 그들의 동료인 야만인과의 전투에 임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졌을지라도 이와 같은 현상은 수많은 반역, 배신 및 집단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로마군 내에 훈련과 군기의 수준을 완만하게 쇠퇴시킨 2종류의 병사들이 나타났다. 첫째, 제국 내에 정착이 허용된 야만인 부족수의 증가는 부족 단위의 예비부대라는 개념에서 멀리 떨어진 트라잔 황제의 정책 추구에 역전 현상을 가져왔다.

자신들 부족장의 지휘하에 그들 고유의 무기와 전쟁 수행방식을 유지한 예비부대의 부족적 단위 부대들은 군대 내에 무수히 많이 편입되었다. 이들 부대들은 federati라고 불렸다. 야만인 출신 전사들의 전반적인 로마화에 기인하여 이것으로 인한 전술적인 충돌 현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불안과 반란을 유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지원병 제도에 의하여 병사들을 충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徴兵制가 등장하였다. 대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의 크기에 비례하거나 輪番으로 새로운 신병들을 보충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징집병의 근무 기간은 정규 군인에 비하여 덜 부담스러웠다. 이러한 현상은 자주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군의 전문직업화를 약화시키는 단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후기 중세의 지원병 제도로 향한 단계이기도 하였다.

***후기 로마 제국의 戰術**

기원전 1세기의 율리우스 케사르 시대부터 355년의 율리안의 시대 기간에는 선두에 섰던 군인들 중 아무도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류 역사학자들도 당시의 전투에 대하여 기술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기원전

50~350년 사이의 4세기 동안에 발생한 작전에 관한 전술적인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

레지온의 기본 대형에 관한 한, 각각 5개의 대대들을 보유한 형태의 2선 대형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기병부대의 중요성 증가와 훈련 수준의 저하 현상의 결과로써 戰鬪帶形이 보다 촘촘해지고 팔랑스적으로 변화했다는 징후들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우스 황제로 하여금 레지온의 대대들을 古代의 5각 대형으로 포진시키게 한 對人 戰鬪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공화주의자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후기 로마인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징후들이 역시 있다.

잘 훈련되고 군기가 잘 유지된 후기 로마 제국의 보병이 케사르 시대의 레지온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기병 부대의 충격들을 전통적인 밀집 대형으로 맞아 싸우고 그러한 보병이 그들의 전투 정면을 확장하거나 동일한 속도와 융통성 및 결정력을 유지한 채 세포 단위적인 대형 내에서 기동하고 싸웠다는 것은 312년의 투린 전투에 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보병 전술상의 밀집 대형과 산개 대형의 기본적인 요소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장에서 기병 부대 역할의 증대는 의심할 여지없이 효과가 있었다.

군기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전투대형을 고대의 5각 대형을 취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휘관들은 고대의 팔랑스 대형보다 더 촘촘하게 레지온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쇠퇴하는 레지온 부대에 대한 기병의 효과 중 하나는 던지는 창으로 고대의 중창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이 변화는 마지못해 채용된 것이 분명하지만, 새로운 창이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량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보병 부대와 백병전에 돌입하기 전에 성가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언제나 행해졌다.

기 획 연 재

아마도 검을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면은 초기 레지온의 산개 대형을 취하기 위하여 확장되었을 것이다. 長槍의 그러한 변화는 융통성의 감소와 공격 능력의 감소라는 경향을 제시하였으나, 역으로 훈련의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4세기 초엽이 되자 기병 부대가 로마군 전력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비율은 페르시아인 및 아랍인과 전투한 동부의 사막 지역에서는 더 높았다. 기병은 결정적인 병종이 되었다.

彈道飛行 무기들이 역시 로마군 내에서 중요성이 더하여 갔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전술적인 딜레마를 야기하였다. 기병의 충격에 맞서기 위하여 보병은 밀집 대형에 더 많이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사용상의 문제점과 포진상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비행 무기의 발사체는 보다 산개된 대형을 취하는 경향을 띠 수밖에 없었다. 적들도 역시 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로마군은 비행 무기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기병 부대를 자꾸만 추가하였다.

이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대한 위협이 되는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적응하기 위한 융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세기 초반에 로마인들은 레지온의 100명 단위의 병사들에게 하나 이상의 발리스타와 카타폴타 및 당나귀를 보급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보병 예비부대의 절반 이상은 궁수병 및 창수병이었고 대부분의 기병은 아시아 모델과 같이 기마 궁수병이었다.

하나 또는 다른 종류의 비행 무기들에 이와 같이 많이 의존한 결과 레지온 부대가 검을 지닌 채 백병전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감소시켰다.

■ 로마 제국의 전쟁사

* 311~312년. 내전 ; 막센티우스의 콘스탄틴에 대한 도전

Maxentius는 Daia의 은밀한 지원 하에 170,000명

의 군대를 동원하여 Raetia를 경유하여 Gaul 지방을 침략할 것을 준비하였다. Constantine은 약 10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은 라인강과 칼레도니아 변경 지대의 방어에 묶여 있었다.

막센티우스의 계획을 인지한 콘스탄틴은 主導權을 잡기로 결심하였다. 312년 눈이 완전히 녹기 전에 콘스탄틴은 40,000명의 병력을 인솔하여 Cenis 산맥의 통로를 넘었다.

그는 Susa, Turin, Milan에서 막센티우스의 부하가 지휘한 우세한 병력들을 맞아 승리하였다. 이 중 튜린 전투는 콘스탄틴이 훌륭한 전술적 기량을 펼친 대회전이었다.

콘스탄틴은 그 이후 막센티우스의 일급 장군 Ruricius Pompeianus를 만났으나, 치열했던 Brescia 전투 및 Verona 전투에서 그를 격파하였다.

* 312년. 밀비안橋 전투

콘스탄틴은 전진하면서 증원군을 모아 빠르게 남으로 진군하였다. 그가 로마 부근에 도착했을 때 휘하 병력은 약 50,000명이었다. 막센티우스는 수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75,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서 콘스탄틴은 하늘의 십자가를 보았고 "주님 안에서 그대가 승리하리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승리하면 기독교인이 될 것을 맹세하고 전투에 돌입하여 밀비안교 부근의 티베르강 언덕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막센티우스는 물러나 도주하였다. 수도에 입성한 콘스탄틴은 우선적으로 근위대의 잔류병들을 무장 해제하고 기독교인으로의 개종을 선언하였다. 그는 리키니우스를 동부 지역의 아우구스투스로서 인정하였다.

* 323년.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틴 사이의 재전쟁한 차례의 감정을 표출한 회담 후, 2명의 황제 사이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였다. 양군은 대규모의 육군과 함대를 규합하였다.

* 323년 7월 3일. 1차 아드리아노플 전투

양측의 군은 120,000명에서 150,000명으로 구성되었다. 콘스탄틴은 큰 승리를 얻기 위한 우회 기동을 하였고 자신은 공격의 선봉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리키니우스는 그의 요새화된 기지가 강타 당하였을 때, 전투시 및 전투 후에 35,000~50,000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는 비잔티움으로 도주하였는데, 그 곳은 콘스탄틴에 의하여 포위 공격을 받았다.

* 323년 7월(?). 헬레tm폰트 전투

콘스탄틴의 장자 Crispus가 아버지의 함대 200척을 가지고 2일간 리키니우스의 함대 350척과 싸워 승리하여, 130척을 격파하고 나머지를 흩어버렸다.

크리스푸스의 철수 함대가 보스포리스 해협을 지나면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리키니우스는 Chalcedon으로 도주하였다. 콘스탄틴은 비잔티움 포위에 나머지 병력을 할당하고 60,000명의 군으로 리키니우스를 추격하였다.

* 323년 9월 18일. 크리소폴리스(스쿠타리) 전투

리키니우스는 다시 60,000명의 군을 재건하였다. 다시금 전투가 지속되어 혈전이 이루어졌으나, 콘스탄틴이 마침내 승리하였다. 리키니우스는 도주하였는데, 후에 항복하여 324년 처형되었다.

* 378년 8월 9일. 2차 아드리아노플 전투

아드리아노플에 도착하자마자 Valens 황제는, 3분의 2는 步兵이었고 나머지는 重騎兵 및 輕騎兵으로 구성된 60,000명의 부대를 지휘하여 고트족의 본부로 이동하였다. 고트족의 추장 Fritigern의 斥候兵들은 로마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나가 있던 기병부대를 지휘한 Alatheus와 Saphrax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고트족의 기병부대가 돌아올 시간을 벌기 위하여 프리티제른은 발렌스 황제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행진을 하여 초여름의 태양 아래에서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 빠진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발렌스 황제는 걸으로 회담에 응하는 척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친 그의 부하들이 고트족의 본부를 공격할 대형을 전개할 시간을 벌고자 하였다. 그런데 발렌스 황제는 자신의 側翼 및 後翼에 대한 적절한 경계부대의 운용을 무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 로마군의 예비부대가 회담을 하기 위하여 왔던 비시고트족에 대하여 화력을 사용함으로써 너무 일찍 전투가 시작되었다. 레지온 부대들이 행진대형으로부터 전투대형으로 부분적으로 전개하고 있었으나, 로마군의 기병부대는 양측익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황제는 공격을 명령하였다.

전투가 막 시작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계곡을 굽어 내려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아라테우스와 사프락스가 도착하였다. 고트족의 기병부대는 로마군의 우익 기병부대가 고트족의 마차 요새 본부에 막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에, 로마군에게 번개처럼 타격을 가하여 그들을 쫓아내었다. 고트 기병 중 일부는 로마군의 본부를 관통하여 지나쳤고 로마군의 후방을 돌아 로마군 좌익의 기병대를 공격하였는데, 이 공격은 마차 은신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역습을 가한 비시고트의 공격과 협조하여 이루어졌다.

로마 기병대는 아직도 채 전투대형으로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동 공간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던 로마군 보병부대를 전장에 남겨둔 채 패주하였다. 비시고트의 부대가 본부로부터 도보로 이동하여 로마군의 전투 정면에 압박을 가하는 순간에, 고트족의 기병부대가 로마 레지온 부대의 측방과 후방을 돌아 공격하였다.

전투는 살육전으로 전개되었고, 발렌스 황제는 곧 부상당하였다. 그와 세바스찬, 트라잔 및 40,000명의 로마군이 로마 레지온 부대가 격파 당하는 절정 가운데 사망하였다. 아드리아노플과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할 수 없었던 고트족은 트라스 지방 전역을 노략하였다. (다음호에 계속)